

2/2/20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 장 1-24 절

-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 (창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절관주** 출 31:17, 히 4:4
-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에덴 동산의 사람

- (창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 (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창 2: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절관주** 겔 31:8
-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절관주** 시 46:4
- (창 2: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 (창 2: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 (창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절관주** 단 10:4

-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창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창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의 메세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메세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세지를 함축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본문도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지, 다시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6 일에 걸쳐서 사람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 일째 안식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식을 취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 (쉬바트)'은 천지 만물들이 인간의 다스림 하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이 당신의 창조 목적에 잘 부합하여 그 창조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6 절을 보면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 2: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은 아직 사람이 없는 고로 들에 초목이나 밭에 채소가 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바로 이 귀절이 창세기 2 장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 메세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체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되돌아 갑니다.

'흙 (아파르)'은 죽음 곧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없음' '죽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그냥 흙이며 티끌이며 없음이며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습니다.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이 따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동산 한 가운데에 놓아  
두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다면 굳이 선악과를 동산 한 가운데  
두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세워지고 통치되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자율적인 의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고 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자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풍성히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후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를 말합니다.

(창 2: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 2: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창 2: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창 2: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창 2: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생명나무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네 근원이 되어 흘렀습니다.

동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만 살도록 허락한 곳입니다.

그곳을 생명나무로부터 흘러 나온 강이 적셔줍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적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이 흘러 보내주신 생명수로 적시어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온갖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겔 47: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본문에서 에덴의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동산을 적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천하만국으로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요한 계시록에서는  
어린양의 보좌, 요한 복음에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생물을 살려내고 번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생명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언급합니다.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 2: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신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인 우리를 대신해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로 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할 때 아담이 옆구리에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의 강이 되어 동산과 온 천하를 적셔 보석과 같은 교회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